

2016년 12월 7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
김복희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[제보자] 옛날에 이제 두갓이 살아네이 애길 이제 낳는디 아덜하고 뜰하고 오누이를 낫어. 오누이 나고 쉘를 다섯 무릴 질랏어. 질란 이젠 어느 날은 뜰을 하나 더 낳겐 성드난 어떤 할망이 이 푸데를 가정 왕 낭중에 보난 호렝이 가죽을 그걸을 씨엉 허민 고운 얘기를 낳덴 허는 거라.

아 그 호렝일 씨엉 난 게 보난 곱닥헌 애길 난. 낭중 여우를 난 거라. 아 어느 날은 그 애길 어느 정도 큰디 아 일어낭 보난 쉘 뭐를 길란는디양 그냥 죽어불언. 소가 죽어불언. 그 여우가양 하문으로 이제 그 베설 빠 먹는 거라. 내복을, 경 헹 그 얘기는 왕 톡허게 구덕에 누워부는 거. 또 헛끔 시민 응 또 자 또 듯날 보민 또 쉘 하나도 엇이. 쉘물이 다 죽은 거라. 다 죽으나네. 이제 아덜이 쫌 요 망젖어이. 아덜이

“어머님 아바지 이 얘기가 여우를 닮덴 하문으로 보나네. 나가 뒤에로 보난.”

밤중에 막 그냥 그걸 본 거주게.

“하문으로 손 쑥 들려가지고 내장 빠난 다 죽어부난 이걸 어떻 허민 좋켜 허난 이 얘기를 죽이나 어떻 허켜?”

허난 막 어멍 아방이 못 죽이게 막 그 아덜을 막 때려 분 거라. 그걸 막 죽이肯 막 때려 불엇어. 이제 아덜은 집 나가 불엇어. 몇대로 허렌 잘못허민 지도 죽을 거난양. 계난 하 삼수년 지낭. 어멍 아방이 다 죽엇인가 헹 이젠 절에 들어간 거라. 그 아이가 절에 들어강 그 말을 골으나네.

“게민 어멍 아방신디 가게 웨면은 잘못허민 죽을 거난 이제 챙빗허곡 이제 펭 허곡 앗앙 가는 게 방법이우다.”

경 헹 그걸 앗昂 시님 말대로 집에 왕 보난. 아무도 엊고 어멍 아방도 다 죽여 불엇어. 아무도 엊곡 그 누이만 잇는 거라.

“어멍 아방 어디 가시네?”

허나네.

“저 다 죽어빗젠.”

거난네 그 일목 그 여우는양 하이고 ‘이제 이 밥을 왓다.’고, 속으론 계난 이젠.

“누이야 동싱아 물을 물 혼 그릇을 떠오라.”

떠오렌 허난양 물에양 떠가분 가분 후젠 이젠 그냥 양 도망친 거라. 도망치영

허난 그냥 그 여우가 돌아온디 아 이제.

“아첨밥 이제 떠나였다.”

고양, 막 뛰어오는 거라. 그 동싱이 잡아먹젠 잡아먹젠허난양 펭을 양 흑 데
끼난양 물바다가 뭐 분 거라. 물바다난 나와지쿠꽈? 그 시님 골은 대로, 겐 막
그냥 물로 세와가난양 또 이젠 챙빗을 데끼난 대왓이 뭐 벼. 겐양 막 도망쳐 돌
아오지 못햇젠허난양 돌아오지 못해연 걸로 끝. 그거 호령이라.

[조사자] 챙빗 데끼난 어떻 뒤마씨?

[제보자] 챙빗을 데끼난 세왓이 뭐 분 거.

[조사자] 세왓이 뭐꽈? 세왓?

[제보자] 세. 이 거시기 대왓. 대왓.

[조사자] 대왓?

[제보자] 대왓.

[조사자] 대나무.

[제보자] 대나무. 대나무 뭔 그 시님 곧는 대로 뭐곡 펭이 데끼나네 물바다가 뭐 불곡. 그
시님 곧는.

[조사자] 물바다. 거 어디서 들읍디가?

[제보자] 시님. 옛말 하르방 저거라. 시님한테 그 아이는 시님신디 강 살당 그추룩 가민
어떻 시님이 그 헌 거라. 방법을. 살아나거들랑 이렇게 헹 가보라고. 게난 그 호
령이는 조반 틀리곡 정심밥 반찬 틀렸젠허난양 동싱은 그 호령인 웬 거라. 돌
아오단 버치난. 경 헷젠허난양 나도 들은 말 여우라. 여우. 혼 그릇 가져 오렌.

[조사자] 누이네 집 가난.

[제보자] 가난. 오빠가 이젠 물이 혼 잔 가져 오렌 허난 돌아나 분덴 안 돌아낫젠허난양
여우가이 노끈 앗양 오멍 계민 돌아나지 못허게 지 홀목을 오빠 홀목을 이제 묶으
는 거라. 묶으곡 지 홀목을 묶으난 돌아나 불카부덴 게난 이젠 물 이젠 들레 가
분 후젠허난양 그 지 홀목에 그 노끈을 풀언이 그디 그 의자에 묶엉동 돌아나 분 거라.
왕 보난 의자에 묶으난

“아이고 조반 반찬 응 떠나 불곡 정심반찬 떠나 불곡.”

허멍 그 돌음박질헌 거라. 그 오빠 잡젠허난양 경 허난에이 나가 그때 꺼꾸로 헷어.
경 헹 돌난 이제 챙빗을 데끼난 이젠 세왓 그 뭐 뭐 빗어. 거시기 왕대밧. 왕대
밧 뭐 불곡 또 막 돌아와가난이 그냥 펭을 데끼난이 물바다 뭐 부난 돌아오지
못햇어. 경 허난 그 동싱이 곧는 말이

“아이고 아침반찬 이제 뜰리곡 정심반찬 뜰려 빗저.”

허멍 한탄허멍 웨다네 가 분 거라. 고사 나 그거 꺼꾸로 골앙 경 헌 거라.

- 핵심어 : 호랑이, 오누이, 여우, 간, 챙빗, 펭, 대왓, 물바다